

'열린군수실' 군민 소통 역할 특출 무주군, 전기차 충전소 점검

장수군, 중학생 5명 방문 출산정책·교통문제·도시재생사업 등 건의·정책 제안

장수군이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는 '열린군수실'이 군민 소통 창구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두 번째 열린 '열린군수실'에는 장수중, 장계중, 천천중에 재학중인 학생 5명이 방문해 장수군의 출산정책, 교통문제,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건의사항 및 정책 제안을 했다.



지난 12일 두 번째 열린 '열린군수실'에는 장수중, 장계중, 천천중에 재학중인 학생 5명이 방문해 장수군의 출산정책, 교통문제,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건의사항 및 정책 제안을 했다.

고서린 학생(장계중)은 장수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셋째아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태오 학생(장수중)은 장수군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소년공간 조성이 언제쯤 완료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장영수 군수는 "출산정책은 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수군도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이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 보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공간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는 확보한 상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간을 조성할지 시민단체, YMCA, 교육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계군립도서관, 청소년생활문화공

간, 누리파크 물놀이장 등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수군에서 시설을 만들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접수된 천천면 버스시간 조정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별히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열린군수실에 참여한 윤혜진 학생은 "평소에 군수님을 생각할 때 권위적이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이곳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군 정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장수군의 미래인 학생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곳에 찾아와 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장수군에서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 98%

9월 3일까지 미수령자 예외적 지급기한·적극 배부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지난달 5일부터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배부 중인 가운데 전체 대상자 2만5,335명중 2만4,837명이 수령해 98%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부를 위해

집중 지급기간을 운영, '마을별 찾아가는 배부', 주말 배부 등을 실시했다.

또한 1차 지급기간이 지난 8월 6일로 마무리 됐지만, 미수령자에 대해 예외적 지급기한을 9월 3일까지로 두고, 적극적인 배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 안내와 마을 이장

남과의 협업을 계속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급률을 더욱더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군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는 소멸 되는 만큼 기한 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기를 주민들에게 독려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성 도촌마을 주거경관 개선 본격 추진

무주군이 안성면 도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을 위한 본격 사업에 착수하면서 새롭게 단장된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주거경관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안성면 금평리 도촌마을에 10억7천여만 원의 사업비(도비 5억3천여만 원 포함)를 투입해 올해 연말까

지 지붕개량을 비롯한 주거지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며,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많아지면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된 것.

무주군 주거경관이 취약함에 따라

마을의 전반적인 경관 개선이 필요했던 도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쾌적한 마을로 탈바꿈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봉사과 건축팀 태득춘 팀장은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주민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점검반 편성 정상 작동여부·충전방해행위 지도점검·단속

무주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에 설치된 전기충전소 점검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무주지역에 전기충전소는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매년 수요를 파악하여 설치가 진행되는데, 운영기관인 환경부와 한전 등에서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적합한 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구조다.

올해부터 비개방 완속충전기 보조금의 폐지로 개인용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되고 안전개방 된 충전기의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되는데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은 환경부 제공해차 통합누리 정보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기충전소가 고장이 나면 운영기관인 환경부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을 취해 수리위탁업체에 현장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수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부 등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및 단속을 펼치고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표지를 부착, 충전시 주차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군은 이용객들에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위치를 알리기 위해 다중이용하는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군청 당직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설치장소 리스트를 적극 홍보하고, 저공해차 통합누리 정보집(ev.or.kr),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위치 확인이 가능함을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군민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작동 여부 등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독립유공자 유족 찾아 위로와 감사 전례

장수군이 광복절을 맞이해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광복절을 앞둔 지난 13일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 임무를 수행하다 일본에 체포된 고(故) 김연환 지사의 손자와 3·1 운동을 하다 발각되어 징역을 살았던 고(故) 김종식 지사의 자녀 등 7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을 찾아갔다.

장수군 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가정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장수군호국보훈수당을 올해부터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상·순직 공무원과 5·18 민주유공자를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란웅치전적지 보존회 순국선열 추모제 거행

임란웅치전적지 보존회(이사장 손석기)는 최근 진안군 창렬사(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위치)에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을 선양하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추모제 봉행에는 보존회 임원 및 회원,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 19에 대응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최소화하여 봉행했다.

웅치전적지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이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전주로 향하는 왜군과 벌였던 웅치전투의 현장으로, 웅치에서의 격렬한 저항에 의해 왜군은 끝내 전주 점령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되는데 이로써 호남을 지켜내고 나라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손석기 이사장은 "임진왜란 극복과정에서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웅치전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호국안보의 성지로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의암주논개 제428주기 추모제 제례봉행

의암주논개에 대한 추모제가 순국일인 지난 14일(음력 7월 7일) 장계면 논개생가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제례에서는 초헌관 장영수 장수군수, 아현관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종현관 신봉수 선양회장, 다현관 유금선 선양회부회장이 총절의 표상인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기리는 제례 봉행과 헌공다례를 했다.

이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논개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제례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의암 주논개는 1574년 장계면 대곡리 주천마을에서 탄생, 1593년 6월 남편 최경회 현감을 따라 전주성전투 참전 중 사망하자 남편과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군 승전연에 참석, 왜장을 꺼내고 전주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했다.

한편 장수군은 매년 음력 7월 7일 주논개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제를 지내 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